

믿음의 사람들 IV.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면 '방주' 는 반드시 만들어 집니다.

[창세기 6:9]

노아의 역사는 이러하다.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히브리서 11:7]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하여 경고하셨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방주를 마련하여 자기 가족을 구원하였습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그는 세상을 단죄하고, 믿음을 따라 얻는 의를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1. 믿음의 사람들 '노아'

(1) 히브리서 11장(믿음의 말씀)에 소개된 노아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 말한다. 이 본문을 살펴보면, 모든 말씀앞에 '믿음으로~' 라는 단서가 붙어있다. 무슨 말인가?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보여준다. 그들은 인간의 관점으로 살아가지 않았다. 모든 일에 '믿음의 관점' 을 두고 살아갔다. 그 중에 노아에 대한 설명도 마찬가지이다. 노아가 한 일이 왜 믿음인가?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하여 경고하셨을 때' 라고 기록한다. 이런 비슷한 배경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이다.

[히브리서 11:8]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고, 장차 자기 뿔뿔로 받을 땅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아브라함 또한 노아처럼 믿음의 사람이라고 소개한다.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지만 떠났다' 라고 소개한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보이지 않고 알 수 없는 일에 대한 확신' 이다. 실제로 당시에는 아무것도 이해할 수가 없고, 알 수가 없지만, '믿음' 을 통해서 보이는 것처럼 실제로 움직이고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

(2) 믿음과 행동

'믿음과 행동' 은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이다. 아브라함도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경고를 보았다. 그리고 노아는 바로 '방주' 를 만드는 행동을 하였다. 아브라함도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지만' 그는 행동으로 '떠났다' 성경은 이런 예들을 통해서 믿음의 속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사람은 자신이 알 수 없는 일을 할 때 불안해 한다. 두려움을 갖는다. 그리고 모든 일이 안정적이고 불안함이 느껴지지 않는 확신이 와야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한다. 성경은 내가 알 수 있고, 통제 할 수 있는 상황에 움직이는 것은, 분명히 믿음이 아니라고 말한다. 믿음은 보이지 않고 알 수 없지만, 보이는 것처럼 아는 것처럼 실제로 움직이는 행동을 말한다.

(3) 왜 하나님은 믿음의 시험을 하시는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언제나 '믿음의 시험과 연단' 을 받는다. 왜 그럴까? 하나님은 믿음의 시험을 통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친밀감 정도를 알기 원하신다. 내가 말로만 하나님을 따르는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지 보고 싶어하신다. 이런 속 마음은 보통 때는 나타나지 않지만, 우리의 믿음을 작동해야 하는 불안정한 상황속에서 정확히 나타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처한 안정감을 향하여 믿음의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한 가지이다. 나의 믿음이 오늘 누구에게 '뿌리' 를 두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4) 사람이 지니고 있는 죄성

믿음의 도전은 사람이 지니고 있는 죄성의 측면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성경은 사람이 언제 타락하고 넘어지는지 분명히 보여준다. 사람의 본성상 어려울 때 보다, 모든 것이 안정화 되었을 때 사람은 타락한다. 인간의 최초의 타락은 모든 것이 가장 완벽하게 좋았던 에덴동산 이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그래서 '믿음의 도전' 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 말고 어떤 것도 우리의 안정감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고린도전서 10:12]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5) 믿음은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을 향한 존재적 '확신' 을 말한다.

믿음은 영적인 것이다. 보이지 않고 알 수 없지만, 그 일을 말씀하신 분에 대한 '확신' 을 말한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히브리서 11:6절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이다.

2. 노아가 보여준 믿음의 여정

(1) 믿음은 어떤 사건이 이루어지는 이벤트가 아니다. 믿음은 여정이다.

믿음은 어떤 '사건과 일' 에 대한 영역이 아니다. 그 사건의 주체되신 '하나님과의 관계와 신뢰' 를 말한다. 노아가 방주를 만든 사건은 '믿음' 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 동안 보여준 '하나님과의 관계' 를 말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주에 대하여, 묵묵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방주를 지어간 하나님과 노아의 관계를 말한다. 성경은 노아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라고 기록한다.

[창세기 6:9]

노아의 역사는 이러하다.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믿음이란, 노아의 삶 가운데 비추어진 '하나님의 존재감' 을 말한다. 노아는 방주를 지은 사람이라고 기록하지 않는다. 성경은 노아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이라고 기록했다. 하나님과의 동행 가운데 '방주' 는 노아의 믿음을 보여준 '거울' 일 뿐이다. 방주를 지은 것이 '믿음' 이 아니다. 방주라는 거울을 통해서 노아가 보여준 '하나님에 대한 신뢰' 가 바로 믿음이다.

(2)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의 사건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이벤트가 아니다.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과의 '여정' 을 말한다. 즉,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이다.

(3) 믿음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다. 확신은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의해서 변하지 않는 마음가짐을 말한다. 히브리서 11:7의 말씀처럼,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지만 패역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뜻을 분명히 알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구체적으로 '방주' 로 표현된다. 하나님은 방주의 재질, 크기, 길이, 넓이, 방주에 탈 동물들까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신다.

[창세기 6:14-16]

14 너는 잣나무로 방주 한 척을 만들어라. 방주 안에 방을 여러 칸 만들고, 역청을 안팎에 칠하여라.

15 그 방주는 이렇게 만들어라. 길이는 삼백 자, 너비는 스물 자, 높이는 서른 자로 하고,

16 그 방주에는 지붕을 만들되, 한 자 치켜올려서 덮고, 방주의 옆쪽에는 출입문을 내고, 위층과 가운데층과 아래층으로 나누어서 세 층으로 만들어라.

(4) 노아가 가야 할 믿음의 여정은 추상적이 않다. 구체적이다.

그가 해야 할 일이 분명하다. 노아는 지금은 알 수 없고 보이지 않지만, 앞으로 있을 '경고' 에 대해서 확신했다. 그 일들은 구체적으로 '방주' 를 통해서 분명해졌다.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가 만들어야 할 방주를 짓는 일에 대한 확신도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사람은 많지 않다. 오직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만이 그 꿈을 이루어 드린다. 하나님의 역사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의해서 움직여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5) 믿음의 여정은 헛된 뜬 구름을 잡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은 여정이다.

'방주' 를 하루 아침에 지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비전이 하루 아침에 완성이 되는가? 믿음은 '여정' 을 필요로 한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게된다. 신랑을 어렵듯이 알았던 아가서의 신부가 나중에는 신랑의 모습을 상세히 묘사하는 것처럼, 이 여정은 믿음의 사건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깊이와 넓이의 신뢰를 선물한다.

3. 하나님의 타이밍

(1) 비는 방주가 완성되면 내린다.

방주를 만든 목적은 무엇인가? 홍수심판 때 노아의 가족을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것이다. 방주가 진짜 하나님의 뜻으로 성취되려면 비가 와야한다. 그렇다면 비는 언제 오는가? 방주가 완성되면 온다. 비를 내리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다. 하늘 문이 열려야 하는 것이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방주가 완성되지 않으면 비는 오지 않는다.

그러므로 믿음의 여정을 가는 매일의 삶이 중요하다. 부족하지만 열심히 방주를 짓다보면 방주는 완성된다. 물론 인내와 수고는 필요하다. 하나님은 믿음의 여정을 가는 사람들의 인내와 수고를 반드시 보상하신다. 노아의 가족은 홍수 심판 때 분명한 보상을 받은 것이다.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우리 인간이 그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래서 믿음의 여정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믿음의 수고를 하라. 포기하지 말고 방주를 만드는 수고를 하라. 비는 반드시 온다.

(2) 하늘문이 열린 믿음의 사람

[신명기 11:10-11]

10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은 당신들이 나온 이집트 땅과는 다릅니다. 이집트에서는 채소밭에 물을 줄 때처럼, 씨를 뿌린 뒤에 밭로 물을 댔지만,

11 당신들이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는 산과 골짜기가 많아서, 하늘에서 내린 빗물로 밭에 물을 댍니다.

애굽의 경작은 인간이 물을 대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땅의 경작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땅인 우리 마음안에서, 믿음의 경작법이 날마다 일어나야 한다. 내 인생의 모든 열매가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 의해 결정됨을 알아야 한다.

(3) 방주를 짓는 일과 산과 골짜기를 경작하는 일은 쉽지 않다.

믿음의 여정은 쉽지 않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다. 수고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땅은 산과 골짜기로 이루어져 있다. 산과 골짜기를 경작하는 일은 평지보다 배의 수고가 필요하다.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방주를 짓는 일과 산과 골짜기를 경작하는 일은 쉽지 않다. 그러나 하늘에서 수고하는 믿음의 터인 우리들의 여정 위에, 가장 정확한 때에 늦은비와 이른비를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최선을 다해서 경작하라.

[고린도후서 4:16-17]

16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17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